

와 주의 종을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하며 판단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점점 기도를 쉬고, 하나님의 뜻을 좇기보다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을 지키며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 갔지요. 예전의 열심과 충성과 뜨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외형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는 성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첫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각종 예배와 기도, 전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니 교회에서 여러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토록 뜨겁던 열정도 사들 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지지요. 그나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지만 예전의 총만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4.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칭찬

1) 진리대로 행하고자 수고하고 인내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은 진리에 위배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니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의 오락과 매매행위를 금하며 주일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또한 '쭈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므로 열심히 기도하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모이기에 힘쓰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며 죄악을 싸워 버리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려면 수고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벗어 버리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당연히 수고가 따르는 것이요, 수고하다 보면 또한 인내가 따르게 되지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으므로 그 수고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말씀하며 칭찬하셨습니다.

2)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던 에베소 교회

진정한 사랑을 지닌 부모는 자녀가 죄를 짓고 탈선하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들어 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11~13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했습니다.

혹여 이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거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에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며 집사나 장로 등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마 18:22)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말고 내쫓으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사랑의 주님께서는 설령 죄를 지었는지라도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받고도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므로 사단의 역사를 받아 점점 더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교회에도 큰 해를 입힙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둔다면 누룩이 온 떡에 번지듯이 다른 사람들까지 죄악에 물들게 되므로 주님께서는 내쫓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내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그에게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권면을 듣고 돌아키면 사망의 길에서 형제를 구한 것이지요. 하지만 듣지 않을 때에는 자신보다 질서상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만 알려서 그들을 통해 권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면 주의 종

에베소 교회는 초창기에는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지만

부흥하면서 점차 교만해짐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께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고

회복하지 못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에게 알리되 질서를 좇아 더 위사람에게 알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서라도 돌아키도록 해야 하지요.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8:15~17).

3) 자칭 사도인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에베소 교회

여기서 사도란, 예수님의 열두 제자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 집사나 장로 등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통틀어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목자가 양 떼에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칠 때, 믿음 있는 성도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것이며, 자신에게 발견되는 합당치 않은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아키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아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날 것 같으면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욱하며 떠나기까지 합니다. 자칭 사도라 한 사람들의 거짓된 모습이 결국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 중에는 교회적으로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요.

스데반 집사가 악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악함을 드러낼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돌로 쳐죽였듯이, 악한 자들은 죄를 지적받거나 정체가 드러나면 더욱 악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시험을 허락하실 경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실족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마치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시험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과 선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개인은 물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4)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모습에서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고 돌아키고자 노력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간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죄를 지적받으면 반발하거나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지요. 이러한 사람이라도 참된 목자는 사랑으로 품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며 참고 견디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변함없이 가르칩니다.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 홀로 산에 올라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하시고자 했습니다. 이때 모세 선지자는 백성을 대신하여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합니다(출 32:31~32).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 매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등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고 견디며 승리했지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의 목자도 참고 주님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2009년 9월 6~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스라엘 연합성회'에서 강사 이재록 목사는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를 선포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GCN"

☆ ☆ ☆ **가정의 달 5월** ☆ ☆ ☆

☆ **가정의달 '특선영화'** ☆

☆ **어린이 애니메이션** ☆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 **하나님의 권능과 치료받은 간증** ☆

☆ **가정이 함께하는 채널, GCN** ☆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 **하나님의 권능과 치료받은 간증** ☆

☆ **가정이 함께하는 채널, GCN** ☆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 **하나님의 권능과 치료받은 간증** ☆